

# 『三和子鄉藥方』의 復原 연구

김진희,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A Study of the Restoration of *Samhwajahyangyakhbang*

Jinhee Kim,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amhwajahyangyakhbang*, a medical book of Hyangyak which was presumed to be published by Samhwaja in the late Goryeo dynasty, became the original source of *Hyangyakganibang*. As *Hyangyakganibang* became the original source of *Hyangyakjesengjipseongbang* which was supplemented to be *Hyangyakjipseongbang*, *Samhwajahyangyakhbang* is a fundamental book which is the original source of Hyangyak medical books such as *Hyangyakganibang* and *Hyangyakjipseongbang* i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Chosun dynasty.

I restored the articles of *Samhwajahyangyakhbang*, mainly focusing on the remaining articles in *Hyangyakjipseongbang*, followed by supplementing some other remaining articles with the help of <Hanuigojeonmyeongjiochongso>, a database of old medical books, and then, recorded and discussed the results in the paper.

1. The remaining articles of *Samhwajahyangyakhbang* were found in *Hyangyakjipseongbang*, *Uibo* and *Uibanghappyeon*. Among them, there is a prescription which is not overlapped in *Uibanghappyeon*.

2.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yangyakjipseongbang* was alternatively adopted due to the absence of classification or table of contents in *Samhwajahyangyakhbang*.

3. There are a total number of 152 articles in the restored *Samhwajahyangyakhbang* and 151 articles out of the total number have been restored from *Hyangyakjipseongbang*. There are 5 articles which remain as notes in the citations of other books in *Hyangyakjipseongbang*.

4. There are a total number of 246 prescriptions in the restored *Samhwajahyangyakhbang*.

5. Even though *Samhwajahyangyakhbang* is a concise medical book, it is one of the core medical books which are cited in *Hyangyakjipseongbang*. In addition, it is the most frequently cited in *Hyangyakjipseongbang* among the Korean medical books. It implies that the compilers of *Hyangyakjipseongbang* considered *Samhwajahyangyakhbang* the most valuable book among the Hyangyak medical books. It is speculated that such results could be achieved because *Samhwajahyangyakhbang* was very popular in those days and its' printing quality was also good.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citations of *Hyangyakkugeupbang* is much less than that of *Samhwajahyangyakhbang*. It is presumed that *Hyangyakkugeupbang* could not be distributed widely not because it was less valuable but because its' printing quality was poor.

keywords : *Samhwajahyangyakhbang*, *Hyangyakjipseongbang*, Hyang-yak(Native herbs), Oriental medicine, Restoration

■ 접수 ▶ 2009년 10월 22일 수정 ▶ 2009년 11월 22일 채택 ▶ 2009년 12월 23일

■ 교신저자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Fax 0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 I. 서 론

『三和子鄉藥方』은 고려 후기에 三和子가 편찬한 것으로 추측되는 향약의서이다. 이 책은 저자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고 현재 전하지 않아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鄉藥濟生集成方』의 서문에 “일찍이 三和子の 『鄉藥方』이 있었는데, 이는 자못 간단하고 요긴한 것만 뽑아 놓아, 論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간략함을 결점으로 여겼더니, 요전에 지금의 관문하 權公仲和가 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다 수집을 더하여 『簡易方』을 편저하였다. 그러나 그 책은 아직도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하였다.”<sup>1)</sup>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鄉藥簡易方』의 저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향약제생집성방』의 발문에는 “또 醴泉伯 權相仲和와 더불어 그가 전에 저술한 『향약방』을 토대로 다시 더 수집하여 全書를 만들어서 중외에 반포하고 영원히 전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모두 지역에 따라 약을 구할 수 있고 병에 따라 치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sup>2)</sup>라고 하여 『향약간이방』이 『향약제생집성방』의 저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향약제생집성방』이 증보된 것이 곧 『鄉藥集成方』이므로 『삼화자향약방』은 『향약간이방』 및 『향약집성방』으로 이어지는 여말선초 향약의서들의 중요 저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물이 희소하고 문헌 기록도 미미하여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향약집성방』에 일부 유문이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신영일의 『삼화자향약방』 조문의 연원에 대한 연구<sup>3)</sup>와 손창학의 『삼화자향약방』의 간행시기에 대한 연구<sup>4)</sup> 총 2편이 있을 따름이다. 신의 연구에서는 『향약집성방』 내의 『삼화자방』<sup>5)</sup> 인용문을 모은 뒤 병증문과 조문 수를 조사하고 『의방유취』에 나타나는 여러 방서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기준으로 연원을 조사하여 『삼화자향약방』의 연원은 『備預百要方』을 중요 의거서로 삼았

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향약집성방』에 남아있는 『삼화자향약방』의 유문들 중 일부가 빠져 있고<sup>6)</sup> 고찰 및 결론에서 언급한 조문 수가 논문 내 발췌 조문 수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밀함에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손은 그의 연구에서 『향약집성방』 내의 『삼화자방』 인용문과 『鄉藥救急方』의 조문을 비교한 결과 『삼화자향약방』으로 기록한 방문들 중 40여개가 『향약구급방』과 동일한내용과 거의 같은 문장인데 『향약구급방』이 아닌 『삼화자향약방』으로 기록되어 있고<sup>7)</sup> 또 중복되는 방문들을 비교하였을 때 『향약구급방』의 문장이 더 자세한데 이는 『향약구급방』이 많은 임상자료와 경험을 축적하여 기록했음을 시사한다<sup>8)</sup>고 하였다. 그는 이 2가지가 『향약구급방』이 『삼화자향약방』보다 후대의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sup>9)</sup>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간행시기의 선후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삼화자향약방』을 중용한 것은 간행시기와는 별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이에 논자는 『삼화자향약방』의 복원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삼화자향약방』의 유문들을 보충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삼화자향약방』의 복원

#### 1) 복원 방법

『삼화자향약방』과 같이 실전된 의서를 복원한 사례는 『御醫撮要』 및 『簡奇方』 등이 있다. 『어의촬요』는 『醫方類聚』의 전산복원본을 바탕으로 유문을 검색하고 『향약집성방』 등에 남아있는 유문들과 대조하여 중복 처방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의방유취』의 특성상 『의방유취』의 의의촬요편이 아닌 여타 편에서 채록된 경우에는 고안을 함께 수록하여 대조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어의촬요』의 복원 뒤에 진행된 『간기방』의 복원에서는 앞선 경험을 토대로 한 국고전의학명저총서 DB<sup>11)</sup>를 검색하여 『의방유취』와 『향

1) 權近, 『陽村先生文集』 卷17,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嘗有三和子鄉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畧, 曩日今判門下權公, 仲和命徐贊者尤加蒐輯, 著簡易方, 其書尙未盛行于世.”(원문 : 한국고전번역원)

2) 權近, 『陽村先生文集』 卷22, 『跋語類』, 鄉藥濟生集成方跋, “又與醴泉伯權相仲和將其嘗所撰著鄉藥之方, 更加衷集, 勒成全書, 將以頒諸中外, 傳諸永遠, 俾觀者皆知隨處而有藥, 隨病而可醫.”(원문 : 한국고전번역원)

3) 신영일, 『『향약집성방』에 나타난 『삼화자향약방』 조문의 연원에 대한 연구』, 1997.

4) 손창학, 『『삼화자향약방』의 간행시기에 대한 연구』, 1992.

5) 『삼화자방』은 『삼화자향약방』의 약칭이다.

6) 『향약집성방』 내에 『삼화자방』 인용문 5조문과 다른 의서 인용문에 주석으로 남아있는 유문 5개가 빠져 있다.

7) 손창학, 위의 논문, p26.

8) 손창학, 위의 논문, p26.

9) 손창학, 위의 논문, p27.

10) 안상우, 『고려 의서 『어의촬요』의 복원』, pp95-96.

약집성방』 이외에도 『瘡疹集』에서도 유문을 채록하여 복원을 진행하였다.<sup>12)</sup> 위와 같은 방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문의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삼화자향약방』의 복원도 이전에 진행된 복원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먼저 현재 이 책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문헌인 『향약집성방』을 저본으로 ‘삼화자방’으로 출전이 표기된 모든 내용을 집록하였다. 이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 DB에서 제공하는 고문헌정보에서 ‘三和子’, ‘三和’, ‘和子’, ‘삼화’, ‘화자’ 등으로 검색한 뒤 앞의 채록물과 대조하여 오류나 빠진 부분을 최소화하였다.<sup>13)</sup>

이러한 검색 방식은 기존에 『삼화자향약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적 외에 다른 서적에서도 인용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서적의 인용문에 『삼화자향약방』의 내용이 주석으로 기록된 경우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다만 전산 입력의 경우 오자나 누락 등의 우려가 있어 채록한 내용을 <한의고전명저총서> DB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나 영인본 등의 출판물과 대조하여 원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처방에는 출전과 고안을 덧붙여서 후속 연구자들이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다.

복원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문 채록 - 『향약집성방』
2. DB 검색 - <한의고전명저총서> DB의 고문헌정보
3. 유문 대조 - 『향약집성방(全)』, 『향약집성방』 1~5(한국학대계 3~7), <한의고전명저총서> DB의 『의방합편』 원문 이미지
4. 유문 정렬 - 『향약집성방』의 분류체계에 의거.
5. 본문 내용 분석 및 고안

## 2) 처방조문의 구성

『삼화자향약방』은 실전되어 원래의 목차를 알 수 없기 때

- 11) 현재는 <한의고전명저총서> DB로 이름이 바뀌었다.
- 12) 안상우, 「실전의서 『간기방』의 복원연구」, pp275-278.
- 13) <한의고전명저총서> DB의 고문헌정보에서는 원서의 한줄에 해당하는 글자가 DB의 텍스트에서도 한줄에 해당하도록 입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서의 어느 페이지 첫줄이 “又方豆豉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三”이고, 둘째줄이 “和子方濃煮豉汁含之.”이라면 아래와 같이 입력되어 ‘三和子’로는 검색이 안되고 ‘三和’ 혹은 ‘삼화’로 검색해야 채록할 수 있게 된다.  
又方豆豉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三和  
子方濃煮豉汁含之

문에 복원의 저본이 된 『향약집성방』의 편제에 따라 조문을 정렬하였고, 처방마다 번호를 붙였다. 예를 들어 『향약집성방』의 심복통문에 인용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을 보면 갑자기 생긴 心腹卒痛에 각각 茴香莖葉과 韋皮, 그리고 好麩를 쓰는 3가지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主治에 따라 1개의 방문으로 구성하지 않고 각각 3개의 방문으로 나누어 번호를 붙였다. 이 때 又方의 경우에는 주치에 괄호를 씌워 방문의 앞머리에 배치함으로써 처방과 주치를 함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주는 【】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Table 1).

<Table 1> 조문 구성 및 표점의 예

『향약집성방』 전산입력문
《三和子方》治心腹卒痛。茴香莖葉水煮服之。又方 韋皮二指許大，細切冷水下。又方 好麩【妙令香】爲末，湯水服【亦治脾胃】。
복원된 『삼화자향약방』 조문
<82> 治心腹卒痛 茴香莖葉水煮服之。 <83> (治心腹卒痛) 又方, 韋皮二指許大, 細切冷水下。 <84> (治心腹卒痛) 又方, 好麩【妙令香】爲末, 湯水服【亦治脾胃】。

## 3) 출전 및 고안

출전은 각 복원 내용마다 채록된 원서의 서명, 권수, 병증문 및 세부 목차를 기록하여 독자가 원문을 확인하거나 후속 연구를 수행하기 쉽도록 하였다. 『향약집성방』에서와 같이 『삼화자향약방』의 조문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서적의 인용문에 주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안을 덧붙여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Table 2).

<Table 2> 고안의 예

『향약집성방』 조문
中風失音不語 《聖惠方》治中風失音立効。大豆三升，淘令淨，以水五升煮令爛，去豆熬，取汁如膏，少少含嚥津，頻服効。又方 豆豉，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三和子方》濃煮豉汁，含之】。
복원된 『삼화자향약방』 조문
<1> (治中風失音立効) 濃煮豉汁，含之。 출전 : 『향약집성방』 卷1, 風門, 中風失音不語, 聖惠方 고안 : 성혜방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4) 원문과의 대조

전산 입력된 자료는 입력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서의 한자 입력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문과의 대조작업을 병행

하였다. 대조작업에 사용된 자료는 한의고전명총서 DB에서 제공하는 『醫方合編』의 원문이미지와 1942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한 『향약집성방(全)』, 그리고 1994년에 출간된 『韓國醫學大系』 권3~7(『향약집성방』 영인본)이다.

## 2. 『삼화자향약방』의 복원 결과

<한의고전명저총서>를 검색하여 유의한 조문들을 채록한 결과 『삼화자향약방』의 遺文이 검색된 서적은 총 3가지로 『향약집성방』, 『醫寶』, 『의방합편』이었다. 이 중 『의보』의 유문은 1조문 3처방이었는데 모두 『향약집성방』의 유문과 중복되고, 『의방합편』의 유문은 1조문 2처방이었는데 이 중 1처방은 『향약집성방』 및 『의보』와 중복되고 나머지 처방은 두 서적과 중복되지 않았다.

『삼화자향약방』를 복원할 때는 『향약집성방』을 제1저본으로 삼아 중복되는 처방은 모두 『향약집성방』의 유문에 따랐고 중복되지 않는 『의방합편』의 1처방만 『의방합편』 내의 유문으로 복원하였다.

『의보』 및 『의방합편』의 유문과 이와 중복되는 『향약집성방』의 유문은 아래와 같다.

### 『향약집성방』

○治女人陰腫, 桃仁, 炒令黃熟, 卽研, 酒服如彈丸大.

○又方, 伏龍肝和鷄子黃傅之.

○又方, 蛇床子末和鷄子黃傅之.

출전 : 『향약집성방』 卷56, 女陰門, 婦人陰腫, 三和子方

### 『의보』

○三和子, 治婦人陰腫, 桃仁炒令黃熟, 細研, 酒服如彈丸.

○伏龍肝和鷄子黃付之.

○蛇床子末和鷄子黃付之.

출전 : 『醫寶』, 付婦人諸症救急方

### 『의방합편』

○三和子方, 婦人陰門卒腫如刺, 小蒜·薤根·柳根各一斤, 細剉, 酒三升煮令沸乘熱熏洗.

○蛇床子末和鷄子付之

출전 : 『醫方合編』 권3, 前陰後陰, 村救, 陰痒腫痛

### 1) 병증문

『삼화자향약방』의 원래 편제나 목차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원된 조문을 분류할 때에

『향약집성방』의 분류체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복원의 참고 자료인 『향약집성방(전)』에서는 『향약집성방』의 항목을 57가지로 분류하였고, 『한국의학대계』를 비롯하여 뒤를 이은 연구<sup>14)</sup>에서도 이를 따라 57 병문으로 서술해왔다. 그러나 이는 吐血論이하의 내용들을 鼻衄門에 함께 배속한 것으로, 鼻衄과 吐血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며 체제를 보아도 대체로 論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항목이 나뉘므로 鼻衄門의 뒤에 吐血門을 따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吐血門을 포함하여 항목을 58가지로 분류하였다. 또 『향약집성방(전)』에서 항목명을 齒牙門으로 붙인 것도 역시 『한국의학대계』를 비롯하여 『향약집성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대로 이어졌는데 세부병증명 및 내용을 보면 원문에서는 ‘牙齒’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牙齒門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생각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牙齒門이라 기록하였다.

『향약집성방』의 58가지 분류항목 중에서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이 추출된 항목은 총 34개인데 일반병증문<sup>15)</sup>은 風病門, 熱病門, 暑病門, 積熱門, 癰病門, 脚氣門, 腰痛門, 霍亂門, 三疝門, 水病門, 大小便門, 諸淋門, 積聚門, 心痛門, 嘔吐門, 噎膈門, 吐血門, 頭門, 眼病門, 耳病門, 口舌門, 牙齒門, 諸痢門, 痔漏門, 癰疽瘡瘍門, 折傷跌撲門, 諸損傷門, 蟲獸傷門의 28개, 부인과에 해당하는 병증문이 崩漏門, 女陰門, 妊娠疾病門, 產難門, 產後門으로 5개이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하부항목이 없이 小兒科가 있다. 『향약집성방』 내에 남아있는 유문과 겹치지 않는 『의방합편』의 유문은 「前陰後陰」에 인용되어 있었고, 婦人陰門의 증상과 관련된 조문이므로 『향약집성방』의 女陰門의 처방들과 함께 두었다. 『향약집성방』의 분류체제와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수 및 추출된 항목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Table 3).

14) 정면은 「『鄉藥集成方』의 편찬에 대한 소고」에서 『향약집성방』에서 질병이 57대강문과 959조목으로 분류되어 있다(p96)고 하였고, 신영일도 「『鄉藥集成方』에 나타난 『三和子鄉藥方』條文의 淵源에 대한 연구」에서 『향약집성방』에서는 풍병문으로부터 제구급문까지 46문으로 나누고 있고, 다시 부인과를 10개의 문으로 나누었으며, 소아과에서는 병문을 구별하지 않았다(p97)고 하여 5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종권은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에서 『향약집성방』의 내용은 총 57대강문과 부인과와 소아과 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p194)고 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57대강문은 부인과의 10가지 병증문과 소아과를 포함한 것이다.

15) 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한 병증문을 의미한다.

&lt;Table 3&gt; 『향약집성방』의 병증문과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수

병증문	유문수	병증문	유문수	병증문	유문수
風病門	16	諸疝門	0	痔漏門	3
傷寒門	0	積聚門	2	癰疽瘡瘍門	30
熱病門	1	心痛門	4	折傷跌撲門	3
暑病門	1	諸欬門	0	諸損傷門	5
濕病門	0	諸氣門	0	蟲獸傷門	2
積熱門	3	痰飲門	0	中諸毒門	0
癆病門	1	嘔吐門	3	諸救急門	0
脚氣門	2	噎膈門	2	調經門	0
腰痛門	1	脾胃門	0	崩漏門	2
霍亂門	3	蠱毒門	0	婦人諸病門	0
眩暈門	0	鼻衄門	0	女陰門	2
諸虛門	0	吐血門	1	求嗣門	0
驚悸門	0	頭痛門	2	胎教門	0
虛損門	0	眼病門	7	妊娠疾病門	3
勞瘵門	0	耳病門	3	坐月門	0
三消門	1	鼻病門	0	產難門	1
水病門	2	口舌門	3	產後門	5
黃病門	0	牙齒門	3	小兒科	17
大小便門	4	咽喉門	0	합계	151
諸淋門	6	諸痢門	7		

## 2) 조문의 수

『삼화자향약방』의 조문 수에 대한 기존의 기록들을 보면 신영일은 그의 논문<sup>16)</sup>에서 본방서의 내용이 『향약제생집성방』에는 140여조가 인용되고 있고,<sup>17)</sup> 『향약집성방』에서는 139조문이 인용되었다<sup>18)</sup>고 하였다. 그는 “세종 13년(1431)에 편찬한 『향약집성방』에서는 질병을 풍병문으로부터 제구급문에 이르기까지 46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본방서를 인용한 곳이 風病, 熱病, 暑病, 積熱, 癆病, 脚氣, 腰痛, 霍亂, 三消, 水病, 大小便, 諸淋, 積聚, 心痛, 嘔吐, 噎膈, 鼻衄,<sup>19)</sup> 頭, 眼病, 耳病, 口舌, 齒牙,<sup>20)</sup> 諸痢, 痔漏, 癰疽瘡瘍, 折傷跌撲, 諸損傷, 蟲獸傷 등의 28門에 걸쳐 103조문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부인과 소아과의 질병을 각각 따로 나누고 다시 부인과를 10개의 門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중에 崩漏, 女陰, 妊娠疾病, 產難, 產後 등의 5門에 걸쳐 17조문에 이르고 있으며, 소아과에서는 병문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19조문이 실려있다.”<sup>21)</sup>라고 하였다. 즉, ‘103조문(28문)+17조문(부인과)+19조문(소아과)=139조문’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결론에 실린 내용과는 달린 본문 내에 실려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8문에 113조문, 부인과에 12조문, 소아과에 16조문으로 총 141조문이 된다.<sup>22)</sup>

그의 다른 논문<sup>23)</sup>과 『韓醫學通史』에서는 28문에 190조문, 부인과에 17조문, 소아과에는 19조문이 실려있다<sup>24)</sup>고 하였다. 『韓醫藥書攷』에서는 『삼화자향약방』의 내용이 『향약제생집성방』에 143여 조가 인용되고 있다<sup>25)</sup>고 하였다. 또 손창학은 그의 논문<sup>26)</sup>에서 147곳에 200여 방문의 유문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147곳’은 병증문의 수와 차이가 크고, 처방 수와도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쓰인 ‘조문’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여 방문’은 처방 수<sup>27)</sup>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기존의 기록들은 조문 수에 대한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조문 수를 어떤 기준으로 세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복원결과를 바탕으로 조문을 세는 기준을 세우고 조문 수와 처방 수를 구분하여 명기한다면 앞으로의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조목은 주로 법률이나 규정 등의 차례로 나누어 정해 놓은 낱말의 조나 項目, 條項, 節目, 項目이다. 법률처럼 조문에 번호가 붙어있거나 낱말의 조문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조문의 수를 세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서에서 조문을 세는 것은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다. 조문 1개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분류항목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고,<sup>28)</sup> 너무 작으면 개개의 처방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개 조문의 범위는 분류항목보다 작으면서 개개의 처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로 기존의 조문 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엄연히 분류항목의 수나 처방의 개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방』이나 『삼화자향약방』과 같은 향약 의서에

22) 신영일은 위의 논문 내에서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삼화자향약방』의 조문들을 신고, 각각의 아래에 교감을 하였는데, 이 교감이 붙은 부분을 하나의 조문으로 보고 세었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23) 신영일, 『고려시대 의학에 대한 고찰』, 1995.

24) 신영일, 위의 논문, p386. 김남일 · 맹웅재 · 신영일 · 안상우 등 공저, 『한의학통사』, p156.

25) 김신근, 『한의학서고』, p30.

26) 손창학, 『삼화자향약방』의 간행시기에 대한 연구, pp2-3.

27) 처방 수: 여기에서 의미하는 처방 수는 단순히 약처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이나 뜸 처방과 같은 치료법을 포함한다.

28) 예를 들어 ‘大小便不通方’이라는 분류항목 아래에 각기 다른 서적에서 발췌한 10가지 처방이 있을 때, 이 10가지 처방을 묶어서 조문 1개로 센다면 조문의 범위가 너무 커서 분류항목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신영일, 『『향약집성방』에 나타난 『삼화자향약방』 조문의 연원에 대한 연구』, 1997.

17) 신영일, 위의 논문, p97.

18) 신영일, 위의 논문, p98.

19)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鼻衄門이 아닌 吐血門으로 배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20)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牙齒門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1) 신영일, 위의 논문, p97.

서는 주 내용이 병증에 따른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이나 논설은 생략하고 짧은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부 주치를 위주로 조문을 나눈다면 큰 오차가 없을 것이다. 세부 주치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대표 병증이 분류항목이 되고 대표 병증의 세부 증상은 처방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부 증상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諸損傷門에 있는 “治湯火瘡, 芭蕉搗取汁, 塗之. 又方, 成火草搗傳之, 効. 又方, 大麥末和醋傳之.”<sup>29)</sup>라는 문장에는 ‘芭蕉’, ‘成火草’, ‘大麥’의 3가지 처방이 들어있지만 모두 “湯火瘡”을 치료하는 처방들이므로 1개의 조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諸損傷門”이라는 분류항목과 개개의 처방 사이에서 의미가 구별되고 동시에 조문 수에 대한 오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삼화자향약방』을 복원한 결과에 위의 방법을 적용시키면 복원한 『삼화자향약방』의 조문은 총 152개이고, 이 중 『향약집성방』에서 추출한 조문은 총 151개이다. 그 중 『향약집성방』 내에서 다른 서적의 인용문에 주석으로 남아있는 조문은 총 5개로 『聖惠方』 인용문의 주석이 2개, 『千金方』 인용문의 주석이 1개, 『聖濟總錄』 인용문의 주석이 1개 그리고 『婦人大全良方』 인용문의 주석이 1개이다.

『향약집성방』 내에서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이 주석으로 남아있는 인용문과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방문은 아래와 같다(Table 4).

<Table 4>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이 남아있는 『향약집성방』 내 타의서 인용문과 복원문

인용문(1)	《聖惠方》 治中風失音立効. 大豆三升, 淘令淨, 以水五升煮令爛, 去豆熬, 取汁如膏, 少少含嚥津, 頻服効. 又方 豆豉, 煮取濃汁, 放溫, 稍稍服之【《三和子方》濃煮豉汁, 含之】.
복원문(1)	<1> (治中風失音立効) 濃煮豉汁, 含之. 출전 : 『향약집성방』 卷1, 風門, 中風失音不語, 聖惠方 고안 : 성혜방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인용문(2)	《聖惠方》 治霍亂吐下後, 大煩渴, 飲水不足 黃米一合, 以水一大盞, 煮令熟, 放溫飲清汁, 頻服之【《三和子方》粟米泔汁, 飲數升立差】.
복원문(2)	<45> 治霍亂吐下後, 大煩渴, 飲水不足. 粟米泔汁, 飲數升立差. 출전 : 『향약집성방』 卷13, 霍亂門, 霍亂煩渴, 聖惠方 고안 : 성혜방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인용문(3)	《聖濟總錄》 治霍亂轉筋入腹, 裹足法. 木瓜二枚, 切破, 以水五升, 煎三升, 以古青布浸湯中, 用裹轉筋上. 如無木瓜, 煎枝二兩亦得【《三和子方》治四肢攣縮, 木瓜搗碎, 以甌蒸之, 并所蒸水置槽中入浴, 勿令洩氣】.
복원문(3)	<46> 治四肢攣縮

29) 『鄉藥集成方』 卷48, 諸損傷門, 湯火瘡, 三和子方.

	木瓜搗碎, 以甌蒸之, 并所蒸水置槽中入浴, 勿令洩氣. 출전 : 『향약집성방』 卷13, 霍亂門, 霍亂轉筋, 聖濟總錄 고안 : 성제총록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인용문(4)	《婦人大全良方》 療產後血不出, 虛羸殆死, 亦治血氣. 蒲黃二兩 以水二升, 煎取八合, 頓服【《聖惠方》蒲黃三兩, 酒三升, 經宿不計時, 燉飲一小盞. 《三和子方》新汲水調下二錢】.
복원문(4)	<222> 療產後血不出, 虛羸殆死, 亦治血氣 蒲黃, 新汲水調下二錢. 출전 : 『향약집성방』 卷64, 產後門, 產後惡露不絕, 婦人大全良方 고안 : 부인대전양방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인용문(5)	《千金方》 治少少腹脹滿. 父母指甲燒灰, 傅乳頭上飲之. 又方 韭根汁和豬脂煎, 細細服之. 又方 車穀中脂和輪下土如彈丸, 吞之立愈. 又方 米粉 鹽等分 ○右炒變色, 腹上摩之【《三和子方》胡粉亦可】.
복원문(5)	<232> 治少小腹脹滿 米粉-鹽等分. ○右炒變色, 腹上摩之. 胡粉亦可. 출전 : 『향약집성방』 卷68, 小兒科, 小兒腹脹, 千金方 고안 : 천금방 방문 아래 ‘三和子方’ 주문에 의거하여 원문을 복원하고 해당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3) 처방 수

복원된 방문에는 번호를 붙였는데 조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처방을 기준으로 각각 번호를 붙였다. 즉 1개의 조문 중 ‘又方’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처방 수를 달리 센 것이다. 이 경우에는 “又方, 芋葉取汁塗之.”<sup>30)</sup>라고만 기록되면 주치를 바로 알기 힘든 단점이 있으므로 “(治漆瘡) 又方, 芋葉取汁塗之.”와 같이 앞서 나온 주치를 괄호 안에 넣어 알기 쉽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복원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 수는 총 246개이다. 이를 병증문 및 조문 수와 함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이 남아있는 『향약집성방』 내 타의서 인용문과 복원문

병증문	조문	처방	병증문	조문	처방	병증문	조문	처방
風病門	16	30	積聚門	2	3	癰疽瘡瘍門	30	51
熱病門	1	1	心痛門	4	8	折傷跌撲門	3	4
暑病門	1	1	嘔吐門	3	8	諸損傷門	5	10
積熱門	3	3	噎膈門	2	5	蟲獸傷門	2	4
瘡病門	1	3	吐血門	1	1	崩漏門	2	2
脚氣門	2	4	頭病門	2	2	女陰門	2	4
腰痛門	1	2	眼病門	7	7	妊娠疾病門	3	3
霍亂門	3	6	耳病門	3	6	產難門	1	1
三瘡門	1	1	口舌門	3	4	產後門	5	6
水病門	2	2	牙齒門	3	4	小兒科	17	20
大小便門	4	10	諸痢門	7	10	합계	151	246
諸淋門	6	12	痔漏門	3	7			

30) 『鄉藥集成方』 卷45, 癰疽瘡瘍門, 漆瘡, 三和子方.

#### 4. 『삼화자향약방』 복원의 의의 및 고찰

이번 복원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유문이 『향약집성방』에 집중되어 있어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부분을 보다 완전하게 복원하는 한편, 『향약집성방』의 유문과 겹치지 않는 다른 의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복원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번 복원 내용으로 『삼화자향약방』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삼화자향약방』에 대한 고전문헌기록이 몇 건밖에 없어 기본 정보가 부족한데 다른 의서에서 추출된 유문도 매우 적어 복원 내용이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내용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다만 246가지에 해당하는 『삼화자향약방』의 처방을 살필 수 있고 또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살필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의서들은 현재 『향약구급방』을 제외하고는 실전되어 몇몇 의서의 일부 내용만이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 등 조선시대 의서에 남아있다. 『삼화자향약방』은 『양촌선생문집』에 남아있는 『향약제생집성방』의 「서문」에 그 이름이 나온다. 『海東文獻總錄』에는 『어의촬요』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명은 『향약방』으로, 저자는 삼화자로 되어 있다.<sup>31)</sup> 또 『仙槎筆譚』에는 일본의 태의령 橘元勳이 “三和子は 서명인가, 사람의 이름인가?”라고 묻자, 의관 趙崇壽가 “三和란 藥의 이름이다.”라고 대답하는 대목<sup>32)</sup>이 나온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측해보았을 때 『삼화자향약방』의 원래 서명은 『향약방』이고 삼화자는 저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는 三和湯이나 三和散과 같은 약을 잘 써서 삼화자라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만 ‘향약방’이라는 단어는 향약의서를 지칭하는 말로 흔히 쓰이기 때문에 『향약집성방』에서는 삼화자의 『향약방』을 ‘삼화자방’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약집성방』은 『향약제생집성방』을 저본으로 만들어졌고, 『향약제생집성방』은 『향약간이방』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 『향약간이방』은 『삼화자향약방』에다 수집을 더하여 만든 것이라 하니, 『향약집성방』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삼화자향약방』과 맞닿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화자향약방』이 ‘너무 간략한’<sup>33)</sup>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향약집성

방』에서 인용된 약 300여종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90여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권은 그의 논문<sup>34)</sup>에서 『향약집성방』의 총 인용문헌을 조사결과 308종에 가까웠고, 308종 중 10회 이상 인용된 의서는 90종이었으며 10회 미만은 218종이었다<sup>35)</sup>고 하였다. 인용문헌 빈도는 조사결과 『성혜방』, 『성제총록』, 『천금방』, 『圖經』, 『日華子』, 『부인대전양방』 등의 순이며, 『삼화자방』은 총 96회 인용되어 『直指方』과 함께 19번째로 많이 인용되었다<sup>36)</sup>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고유의 향약의서가 본 집성방에 상당한 인용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의 인용빈도별로 보면, 『삼화자방』 96회, 『本朝經驗方』이 65회, 『향약구급방』 31회, 『향약이간방』 24회, 『향약간이방』 17회<sup>37)</sup> 등이라고 하였다. 『향약이간방』과 『향약간이방』을 같은 서적으로 보았을 때 『향약제생집성방』의 저본이 된 『향약간이방』은 41회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삼화자향약방』의 인용횟수의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우리 향약의서 중에서 『삼화자향약방』을 가장 가치있게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전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2번이나 중간되었던<sup>38)</sup> 『향약구급방』의 인용횟수가 『삼화자향약방』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의외한 면이 있다. 『삼화자향약방』의 조문의 연원을 살펴보면 신영일은 『향약집성방』에서 발췌한 『삼화자향약방』의 조문들을 『의방유취』 내 여러 서적의 인용문과 비교하여 그 연원이 『비예백요방』에 있음을 밝혔는데<sup>39)</sup> 『향약구급방』에 대해서도 『비예백요방』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였다<sup>40)</sup>고 하였다. 또 그는 『향약구급방』

요령만 뽑아 놓아, 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간략함을 걸 짐으로 여겼더니(嘗有三和子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畧.)”라는 부분을 지칭한다.

34) 김종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2006.

35) 김종권, 위의 논문, p222.

36) 김종권, 위의 논문, p226.

37) 김종권, 위의 논문, p225.

38) 1417년(태종 17) 7월 경상도 義興縣에서 중간하였고, 1427년(세종 9)에도 충청도에서 중간하였다.

39) 신영일은 위의 논문 p98에서 “『향약집성방』에 나오는 『삼화자향약방』의 139조문 가운데 순수하게 『備預百要方』만을 인용한 것은 114조문이며, 나머지 다른 방식을 인용한 것 가운데 12조문은 맨 뒤에 ‘備預百要方同’이라고 쓰여 있고 특히 처방 가운데 여러 방식에서 보이나 용량이나 복용방법이 조금 다른 것은 『비예백요방』을 따르고 있으며 병명에 대한 해설이나 분류도 『비예백요방』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방서의 연원은 『비예백요방』을 중요 의거서로 삼고 『식의심감』이나 『태평성혜방』 등의 다른 방식을 참조 침삭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40) 신영일은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p346)에서 최진환, 이영택의 논문을 인용하여 “본방서에서 인용한 처방은 이 시대

31) 김휴, 『해동문헌총록』, p3396.

32) 橘元勳, 『仙槎筆譚』, 한의고전명저총서, “○元勳云, 鄉藥集成之諸方具載所出也. 謂三和子者, 書名乎, 人之名乎. ○崇壽云, 三和言藥之名也乎.”

33) 權近, 『陽村先生文集』 卷17,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에 “일찍이 삼화자의 『향약방』이 있었는데, 이는 자못 간단하게

과 『향약집성방』에서 발췌한 『삼화자향약방』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重舌口瘡, 癰疽瘡瘍, 諸痢 등의 처방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다<sup>41)</sup>고 하여 두 의서의 내용상 유사점을 지적하였다. 손창학도 그의 논문<sup>42)</sup>에서 『향약집성방』에서 『삼화자향약방』으로 기록한 방문들 중 40여개가 『향약구급방』과 동일한내용과 거의 같은 문장인데 『향약구급방』이 아닌 『삼화자향약방』의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중복되는 방문들을 비교하였을 때 『향약구급방』의 문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확실하고 자세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43)</sup>

위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삼화자향약방』과 『향약구급방』은 같은 『비예백요방』을 저본으로 하여 비슷한 처방을 다수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에서는 『향약구급방』이 더 자세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더욱 자세하고 2번이나 중간되었으며 기록에도 남아있는 『향약구급방』보다, 간략하고 기록도 거의 전무한 『삼화자향약방』을 더 높게 평가한 까닭은 무엇이이었을까?

『향약집성방』은 『향약제생집성방』을 저본으로 하여 증보한 것이다. 『향약제생집성방』의 서문에는 “일찍이 삼화자의 『향약방』이 있었는데, 이는 자못 간단하고 요긴한 것만 뽑아 놓아, 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간략함을 결점으로 여겼다.”<sup>44)</sup>는 내용이 있다. 어떠한 책에 대한 비평이 서문의 기록에 남을 정도라면 이는 그만큼 널리 읽혔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또 논하는 사람들이 간략함을 불만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서적이 실용적으로 쓰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하는 갖가지 증상들에 대처하다보니 『삼화자향약방』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

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동기가 되어 향약의서들의 간행을 유도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향약제생집성방』 및 『향약집성방』의 서문, 발문에 『향약구급방』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한편 『향약구급방』 중간본의 발문에는 “옛날에 대장도감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판이 이지러지고 구판본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의흥군에 부임한 최자하가 이 책을 중간하여 의료의 혜택을 넓히고자 생각하여 개인이 갖고 있던 알아보기 좋은 판본을 꺼내어 감사인 이지강에게 고하니 감사가 즉시 최자하가 부임한 현에 짐차할 것을 명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였다.”<sup>45)</sup>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약구급방』의 구판본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으며, 널리 퍼지지도 못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세부 내용은 둘째치고 『향약제생집성방』이 편찬될 때에 『삼화자향약방』은 널리 쓰이고 있었고 『향약구급방』은 최자하가 개인 소장 of 좋은 판본을 꺼내어야 중간할 수 있었을 정도로 판본의 유통상태가 나빴던 것이다. 신영일의 연구에 의하면 『향약집성방』에서 『향약구급방』을 인용한 방문 가운데 현재 전해오는 중간본에 나타나지 않은 7방문이 보이며 이외에도 더 많은 탈루된 방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6)</sup>고 하니 그나마 그의 판본도 완전치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약집성방』에 『삼화자향약방』의 인용횟수가 많은 것은 『향약집성방』을 편찬하던 시기에 『삼화자향약방』이 매우 성행한 동시에 판본상태도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향약구급방』의 인용횟수가 『삼화자향약방』에 매우 못미치는 것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서가 아니라 판본상태가 매우 나빠서 널리 유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간된 『향약구급방』에 없는 조문들이 『향약집성방』에 있는 것으로 보아 『향약집성방』의 편찬에 반영된 『향약구급방』은 중간본과 다른 판본이었을 것이다.

### III. 결 론

『삼화자향약방』은 고려 후기에 삼화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서로 권중화가 이 의서를 바탕으로 『향약간이방』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향약간이방』은 또 『향약제생집성방』의 저본이 되고, 이는 『향약집성방』으로 이어져 『삼

이전에 편찬된 의서, 즉 『친금요방』, 『외대비요』, 『경험양방』, 『주후비급방』, 『태평성혜방』, 『보제본사방』, 『비예백요방』 등에서 변증을 하지 않고도 쉽게 쓸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로 구성된 처방을 선택했으며 대부분 통치방을 취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예백요방』을 인용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처방 가운데 여러 방에서 보이거나 용량이나 복용방법이 조금 다른 것은 『비예백요방』을 따르고 있으며, 병명에 대한 해설이나 분류도 『비예백요방』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고 있으니, 본방서는 『비예백요방』을 중요 의거서로 삼고 다른 방서를 참고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41) 신영일, 『『향약집성방』에 나타난 『삼화자향약방』 조문의 연원에 대한 연구』, p97.  
 42) 손창학, 『『삼화자향약방』의 간행시기에 대한 연구』, 1992.  
 43) 손창학, 위의 논문, p20.  
 44) 권근, 『陽村先生文集』 卷17,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嘗有三和子鄉藥方。頗爲簡要。論者猶病其畧。”(원문 : 한국고전번역원)

45)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p337.  
 46) 신영일, 위의 논문, pp344-345.



화자향약방』은 여말선초 향약의서들의 저본이 된 중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삼화자향약방』은 그동안 발견된 문헌 기록이 희소하고 남아있는 유문도 『향약집성방』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어 관련 연구도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연구가 정밀하게 보완되지 못했던 탓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용한 분류체제에 오류가 있었으나 문제제기조차 없었고, 조문 수에 대한 표현도 부정확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향약집성방』의 내용이 전산화되고 더불어 각종 고의서들의 데이터베이스인 <한의고전명저총서>가 구축되면서 『향약집성방』 내에 주석으로 인용되었던 『삼화자향약방』의 유문과 다른 의서에 인용된 부분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향약집성방』 내의 『삼화자방』 유문을 집록하는 한편 <한의고전명저총서>를 검색하여 누락된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을 채록하고 1942년에 출간된 『향약집성방(진)』과 1994년에 출간된 『한국의학대계』 권3~7, 『향약집성방』 영인본) 그리고 <한의고전명저총서>에서 제공하는 『의방합편』의 원문이미지와 대조하여 정밀하게 복원하였다. 또 기존연구들에서 보이는 『향약집성방』의 병증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조문 수에 대한 표현도 기준을 세워 정리하였다.

논자가 『삼화자향약방』을 복원 및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삼화자향약방』의 遺文이 발견된 서적은 총 3가지로 『향약집성방』, 『의보』, 『의방합편』이었다. 이 중 『의보』의 유문은 1조문 3처방이었는데 모두 『향약집성방』의 유문과 중복되고, 『의방합편』의 유문은 1조문 2처방이었는데 이 중 1처방은 『향약집성방』 및 『의보』와 중복되고 나머지 처방은 두 서적과 중복되지 않았다.

2. 『삼화자향약방』의 원래 편제나 목차는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향약집성방』의 분류체제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존에 57대강문으로 분류한 것은 吐血論부터 시작되는 吐血관련 병증들을 鼻衄門에 함께 배속한 것으로 鼻衄과 吐血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며 체제를 보아도 대체로 論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항목이 나뉘므로 鼻衄門의 뒤에 吐血門을 따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吐血門을 포함하여 총 58대강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분류항목 중 齒牙門이라 이름 붙인 것도 세부병증명 및 내용을 보면 원문에서는 ‘牙齒’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牙齒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향약집성방』의 58가지 분류항목 중에서 『삼화자향약방』의 유문이 추출된 항목은 총 34개인데 일반병증문은 風病門, 熱病門, 暑病門, 積熱門, 癰病門, 脚氣門, 腰痛門, 霍亂門, 三瘡門, 水病門, 大小便門, 諸淋門, 積聚門, 心痛門, 嘔吐門, 噎膈門, 吐血門, 頭門, 眼病門, 耳病門, 口舌門, 牙齒門, 諸痢門, 痔漏門, 癰疽瘡瘍門, 折傷跌撲門, 諸損傷門, 蟲獸傷門의 28개, 부인과에 해당하는 병증문이 崩漏門, 女陰門, 妊娠疾病門, 產難門, 產後門으로 5개이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하부항목이 없이 小兒科가 있다

4. 『삼화자향약방』의 조문 수에 대한 기존의 기록들은 조문 수에 대한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조문 수를 어떤 기준으로 세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향약집성방』이나 『삼화자향약방』과 같은 향약 의서에서는 주 내용이 병증에 따른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이나 논설은 생략하고 짧은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 주치(또는 병증)를 기준으로 조문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복원된 『삼화자향약방』에 위의 방법을 적용시키면 총 조문은 총 152개이고, 이 중 『향약집성방』에서 추출한 조문은 총 151개이다. 그 중 『향약집성방』 내에서 다른 서적의 인용문에 주석으로 남아있는 조문은 총 5개로 『성혜방』 인용문의 주석이 2개, 『천금방』 인용문의 주석이 1개, 『성제총록』 인용문의 주석이 1개 그리고 『부인대전양방』 인용문의 주석이 1개이다.

5. 1개의 조문 중 ‘又方’이 있는 경우에 각각 처방 수를 달리 센 결과 복원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 수는 총 246개였다.

6. 이번 복원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유문이 『향약집성방』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의서에서 추출된 내용은 매우 적어 이번 복원 내용으로 『삼화자향약방』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246가지에 해당하는 『삼화자향약방』의 처방을 살필 수 있고 또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살필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7. 『삼화자향약방』의 원래 서명은 『향약방』이고 삼화자는 저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는 三和湯이나 三和散과 같은 약을 잘 써서 삼화자라 불리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삼화자향약방』은 간략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향약

집성방』에서 약 300여종의 인용문헌 중 19번째로 많이 인용되었다. 우리 의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우리 향약의서 중에서 『삼화자향약방』을 가장 가치있게 평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삼화자향약방』이 당시에 매우 성행하였고 또 판본상태도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향약구급방』의 인용횟수가 『삼화자향약방』에 매우 못미치는 것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서가 아니라 판본상태가 매우 나빠서 널리 유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 VI. 참고문헌

1. 김신근, 『鄉藥集成方』 1~5, 韓國醫學大系 3~7, 서울: 여강출판사, 1994.
2. 유효통 외, 세종조명찬 『鄉藥集成方(全)』, 서울: 한성도 서주식회사, 1942.
3. 김남일, 맹웅재, 신영일, 안상우 등 공저, 『韓醫學通史』, 경기도 고양: 대성의학사, 2006.
4.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5. 金傑 著, 張伯偉 編, 『海東文獻總錄』, 朝鮮時代書目叢刊 柒, 北京: 中華書局, 2004.
6. 안상우, 「高麗 醫書 『御醫撮要』의 복원」,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83-107
7. 안상우, 「失傳醫書 『簡奇方』의 復原연구」, 『서지학연구』, 2008;40:269-293.
8. 신영일, 「『鄉藥集成方』에 나타난 『三和子鄉藥方』條文의 淵源에 대한 연구」, 『방제학회지』, 1997;5(1):85-98.
9.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94.
10. 신영일, 「고려시대 의학에 대한 고찰」, 『동신대학교논문집』, 1995;7:345-395.
11. 손창학, 「『三和子鄉藥方』의 刊行時期에 對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92.
12. 김중권, 「『鄉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서지학연구』, 2006;35:183-229.
1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명저총서”,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s://jisik.kiom.re.kr>>
14. 한국고전번역원, 『陽村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https://www.itkc.or.kr>>